

강진 V랜드 공원 랜드마크로 키운다

28~30일 사흘간 수국길축제 놀이시설·휴게공간 설치 새단장 1km 구간 수국밭·각종 여름꽃 식재

강진군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강진 수국길축제'를 앞두고 주 행사장인 V랜드 공원 새 단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강진의 명산 보은산에 있는 V랜드 공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ha 면적에 조성됐다. 국비 18억원을 포함해 총 43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다.

V랜드 공원 곳곳에는 사계절 꽃단지과 생태 연못, 산책로, 양묘(養苗) 체험 온실이 들어섰다.

수국길축제를 앞두고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충분히 쉬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집라인과 징검다리 건너기, 미끄럼틀 등 놀이시설 6곳과 퍼즐러(서양식 정자) 3곳, 의자 6곳 등 휴게 공간이 새롭게 설치됐다.

125㎡(38평) 규모 유리온실은 한여름에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사진 촬영 공간과 전시 공간, 냉방기기 등이 설치된다. 폭신한 빈백 의자 등이 들어선 휴식 공간도 마련된다. 이곳에서는 유아 숲과 연계한 학습과 체험 학습 등을 할 수 있다.

V랜드 공원의 백미는 보은산 공원에서 고성사까지 1km 구간에 펼쳐진 수국밭이다. 강진군은 지난 2월 꽃무릇 15만그루를 심었고, 3~5월에는 양귀비꽃, 백일홍꽃, 수레국화, 설악초, 황금 달맞이, 핑크 달맞이, 사스타데이지, 흰 마가렛 등 1만



강진군이 수국길축제(28~30일)를 앞두고 공원 곳곳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쫄맨드라마 2만 그루와 수국 등 여름꽃을 심어 손님맞이에 나섰다. <강진군 제공>

5000그루를 심어 형형색색 꽃밭을 선보일 준비를 마쳤다.

이달까지는 강진군 농업기술센터가 제공한 쫄맨드라마 2만5000그루, 해바라기 1만그루, 버베나 1만그루 등을 색깔별로 심어 볼거리를 더한다.

수국길축제 기간에는 어린이 관람객을 위해 보은산 V랜드 물놀이장을 열고, 밤 9시까지 야영 공간을 개방한다.

이 일대에는 평상 48개와 휴게 의자 등을 설치해 편리함을 더했다. 강진군은 물놀이장을 방수막 포장하고, 탄성 포장 설치, 갑판 바닥 보수, 갑판 계단 설치, 워터슬라이드 정비 등을 진행해 안전

성을 보장했다. 이 밖에도 공원부터 고성사 구간에 반딧불 조명과 무지개 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강진군은 이달 말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휴게시설, 산책로, 물놀이장 등에 대한 보완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관람객의 눈을 즐겁게 하도록 수국밭 등 각종 화단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강진군 관계자는 "앞으로 V랜드 공원을 세계 모란공원, 보은산 연꽃 단지 등과 연계해 휴식과 체험을 모두 만끽할 수 있는 '사계절 명품공원'으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수탁자 모집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신청

장성군이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새로이 끌어갈 운영 수탁자를 모집한다.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장성을 강변안길 100)은 연면적 432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55병상을 갖췄다.

장성군은 2010년부터 수탁 운영을 맡아온 인광의료재단과 계약이 올해 해지됨에 따라 신규 수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게 됐다.

지원 자격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신경과 전문의나 신경외과 전문의,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 하는 사람이다.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7월2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나 장성군 보건소 보건정책팀(061-390-71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정부담 능력과, 사무·기구·시설·장비, 기술 보유 정도 등을 종합 심사한 뒤 위탁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기관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위탁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보건소 폭염 대비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함평군 보건소가 여름철 기온 상승과 폭염에 대비해 건강 취약계층 방문 관리를 강화한다.

여름철 폭염주의보는 최고 33도 이상 2일 지속 때, 폭염경보는 최고 35도 이상 2일 지속 때 발령한다. 이는 일사병, 열경련 등 온열질환을 유발하고 특히 노인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독거노인과 고령자에 대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함평군 보건소는 9월30일까지 방문건강관리사

업에 등록된 어르신 2363명(독거노인 1119명, 80세 이상 노인 1244명)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방문 건강관리를 추진한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직원 30여 명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혈압, 혈당 등을 체크하고 폭염대비 건강수칙이 새겨진 물병을 배부한다. 경로당에는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부착하고 노인 대상 관련 교육을 할 방침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농협 함평군지부 양파 농가 일손돕기 농협 함평군지부(지부장 이광재) 등 농협 임직원과 광주대학교·동신대학교 학생 40여 명이 지난 14일 함평군 나산면 양파 농가를 찾아 양파 수확을 돕고 있다. <함평군 제공>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에 전남기록관 유치 등 추진

장흥군 세가지 활용 방안 제시

2005년 폐교 20년 가까이 방치

폐교 후 2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를 두고 장흥군이 세 가지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활용 방안에는 전남기록관 유치와 글로컬 대학 30 연계, 전남 외국인 근로자 교육센터 건립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열린 장흥군의회 290회 1차 정례회에서 김기용 군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성 장흥군수의 답변에 담겼다.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활용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 김성 군수는 '전남기록관 유치' '글로벌 대학 30 연계 학과 유치' '전남 외국인 근로자 교육센터 건립' 등을 제안했다.

장흥군은 지난 1995년 전남대학 유치위원회를 꾸려 23만1405㎡(7만평)에 달하는 터를 전남도에 기부하면서 1999년 도립장흥대학교를 열었다. 하지만 학생이 줄면서 2005년 도립장흥대학교는 전남도립대학교로 통합됐다.



지난 2005년 문을 닫은 뒤 2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장흥군 제공>

이달 현재 전체 건물 13개 동 가운데 후관동 1개 동만 사용되고 있다.

시설물이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노후화와 경관 훼손, 안전 사고·범죄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장흥군은 방치된 시설물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관련 법을 검토해 활용 방안을 구상했다.

장흥군이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전남기록관 유치'다.

장흥군은 전남 22개 시군의 접근성이 좋은 점을 들어 전남도에 전남기록관 유치를 건의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 시·도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두 번째 방안은 지난해 교육부 주관 글로벌 대학 30에 선정된 순천대학교와 최근 예비 지정된 목포대·동신대 연계 학과를 유치하는 것이다.

장흥군은 지역에 있는 천연자원연구센터와 한약비임상시험센터 등 천연물 산업 기반 시설을 들어 4차 산업과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학과를 유치할 생각이다.

'전남 외국인 근로자 교육센터' 건립은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근로자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한 방안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가 현재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방치됐지만, 다방면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지역의 활력 요소로 자리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군 귀농 창업·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

화순군이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에 창업·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준다.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과 재촌비농업인, 귀농 희망자(퇴직예정자 등)이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이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조건이다. 농업 창업은 세대당 3억원, 주택 구매는 7500

만원 한도 안에서 용자를 지원한다.

올해는 사업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귀농 희망자도 신청 대상으로 포함됐다. 단 다른 산업 분야 상근 근로자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1차 현장평가, 2차 선정심사위원회 심층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대출 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신용·담보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061-379-3648)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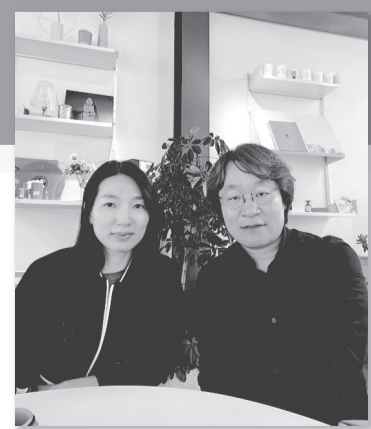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